십자가 금식 효과와 새로움

(마태복음 9:14~17)

14. 그 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15.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16. 생베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해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17.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십자가 금식 효과와 새로움>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십자가 금식 효과와 새로움'
본문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라는 모토로 유명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내용은 예수님의 복음을 새 포도주로 여겨서 유대주의 전통과 잘 맞지 않는다는 해석으로 이어지고는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으로는 본문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뜻에 정확하게 도달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식을 폐지하시기 위해 본문을 언급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식의 본래 의미와 목적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음을 통해 금식의 목적이 성취되었기에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금식의 규정이 잘못되었음을 드러내시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금식의 용도를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를 함부로 유대주의 전통이나 습관이나 규정들이 예수님의 복음에 맞지 않는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금식의 본래 의미로부터 접근할 때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말라는 말씀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을 하였습니다. 한편 요한의 제자들도 이러한 금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들이 그렇게 하였던 것은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따르려 했던 것이 아니라 경건한 생활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만 금식을 당연시했다는 점으로부터 경건한 삶을 위해서는 금식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규정이 있었으리라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한편 마태의 집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더불어 식사하시는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

은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어서 또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을 주제로 질문을 제기합니다. 그 내용이 14절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신들은 경건하고자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으니 경건한 자의 삶에 부합하지 않는 태도가 아니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의 답변은 보다 근본적인 내용이었습니다. 15절을 보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신랑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자리가 바로 혼인집과 같으니 금식을 할 것이 아니라 함께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식의 규정을 언급하시며 복음과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금식의 이유를 문제시 하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요한의 제자들은 주객이 전도된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금식을 해야 할 상황을 문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규정으로 지키는 것만을 목적으로 삼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금식의 취지와 목적을 생각해보기 위해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 봅니다.
레위기 16장을 보면 금식은 일 년에 한 번 있는 속죄일에 단 하루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1절을 보면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의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하였습니다.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것은 금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금식이 이루어지는 속죄일을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식과 안식의 의미가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식과 같은 의미인 금식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 가지고 있는 소원을 강청하는 방식으로 금식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건을 드러내는 외식과 위선의 수단으로 금식을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나름대로 신앙적 목표로써의 경건에 이르기 위해 금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을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대체 어떤 금식의 의미를 생각하셨기에 이러한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금식이 안식과 같은 의미라고 했으니 안식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안식을 어떻게 생각하고 적용하셨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래 안식이란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안식일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뒤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섯째 날 마지막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즉 안식하시는 날에 아담을 만나십니다. 아담의 입장에서는 의식을 가지고 만난 첫 번째 인격적 대상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안식일에 이루어진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모습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의 의미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 세상의 사업장, 시장, 학교, 가정 등을 비롯한 모든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마음을 세상에 쏟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는 느낌이 희박해집니다. 세상일에 대한 관심과 사로잡힘이 하나님을 몰아내는 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민들에게 안식일을 정하시고 삶의 모든 관심을 끊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안식의 의미였습니다. 속죄일에 이루어지는 금식의 의미 또한 이에서 비롯됩니다. 죄란 곧 이 세상일에 관심하고 마음이 지배당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느낌이 희박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아담이 첫 번째로 만났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하게 된 것이 죄입니다. 따라서 속죄일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로막는 세상일을 멈추고자 밥조차 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식과 안식에서 동일하게 발견되는 취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의 금식에서 이 목적이 상실되었음을 보시고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아담이 첫 번째 안식일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와 같은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과 마주하는 것이 하나님을 마주대하는 것과 동일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금식이 필요 없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는 바로 아담이 첫 번째 안식일에 하나님을 대면한 것과 같은 효과가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한편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관련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신랑을 잃어버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은 그 반대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히 마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신랑이신 예수님을 잃어서 금식을 해야 할 때는 바로 세상일에 대한 관심이 마음을 지배할 때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예수님과 연합할 때에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마음에서 예수님을 잃었다면 금식을 해서라도 되찾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차단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대면하시는 그 현장으로 마음을 보내는 것이 바로 복음이 구현되는 상태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계속 바라보는 상황이면 죽을 때까지 금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첫 번째 안식일의 상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금식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살다보면 마음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신랑을 잃어버린다는 말씀이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설령 머릿속에는 십자가를 떠올릴 수 있을지라도 마음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지 못한다면 마음은 세상일에 정복당할 수밖

에 없습니다. 이럴 때에 금식은 필요합니다. 금식이 아니더라도 골방에 들어가서 세상을 차단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금식은 곧 마음에서 세상을 차단하는 대표적 행동이지 단순히 밥을 굶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잠시 삶을 중단하고 차단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게 마음을 연합하면 세상과 끊어질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을 위해 주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주셨습니다. 십자가 주기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자세히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주기도를 통해 십자가를 생활화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주님과 연합하고 세상과 끊어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삶에서도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땅의 삶에서 나타나는 특별한 일이란 곧 기존의 규정과 관습과 전통에 얽매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새 포도주와 새 부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식의 본래 목적이 이루어진 효과를 언급하시며 16~17절에서 '생베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해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베 조각은 낡은 베옷보다 튼튼하고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옷이 찢어집니다. 또 새 포도주가 발효되는 것은 생명력의 상징입니다. 신축성이 없어진 낡은 가죽 부대가 발효의 압력을 견디질 못합니다. 금식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채워지는 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존의 규정과 관습과 전통에 지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지배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고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을 아실 것입니다. 유대사회의 규정에서는 채찍을 들고 성전을 정화한다는 발상은 나올 수 없었고 그러한 관습이나 규정이나 전통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뜻을 받아들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전세를 내신 사건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기에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성전세를 내신 것은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또한 단순히 규정을 지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규정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정리해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금식과 안식의 효과

를 이루는 길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를 밝히 바라보고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다닐 수 있다면 금식과 안식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요한의 제자들처럼 상투적으로 이루어지는 금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들이 하는 금식은 근본적으로 목적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지속적으로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을 만나는 금식과 안식의 근본적 목적은 달성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전통과 규정과 관습에 의한 삶은 중단되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뜻에 의해서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나온 행동들은 율법에 부합하지만 율법을 지키고자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과 일치하는 것이지만 십계명을 지키고자 노력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신선한 뜻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금식과 안식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만 이루어집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동안에 금식은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기존의 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규정이나 전통이나 관습과 관련된 일에만 연관된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일반적으로 두 가지 태도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마음으로 그 상황을 붙잡고 씨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황이 비교적 순조로울 때에 안주해버리는 것입니다. 부자는 아니더라도 웬만큼 먹고 살만하고, 자녀들도 나름대로 갈 길을 찾아서 간 것 같으니 마음이 이 상황에 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이런 태도가 결코 허용되지 않습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하나님을 첫 번째로 만나게 되면 금식과 안식의 효과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마주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만나게 되면 어제까지 내가 겪고 있던 문제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뜻에 따라 마주대하게 됩니다. 또 오늘의 상황에 안주하지 않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십자가 생활화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실 때에는 특정한 경향이 있습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어제까지 처해 있던 상황에 달라붙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금식하고 골방에라도 들어가서 삶을 중단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안식과 금식의 본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듯이, 아담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것과 같은 만남이 우리에게서도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마음은 전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뜻에 따라 상쾌함과 통쾌함을 가지고 상황을 대하게 됩니다.
나를 괴롭히던 문제가 하나님도 괴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일에 대해 하나님이 괴로워하시고 어려워하시고 힘들어하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그 문제가 가볍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기운으로 채워져서 문제를 대할 때에 나의 태도 또한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새로워진다는 말을 합니다. 이 새로워짐은 바로 금식과 안식의 의미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박사학위에서 비롯된 지식만으로는 결코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대할 때에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뜻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성경에 대한 해석과 이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일은 오직 십자가의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삶의 진행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저 은행에 넣어둔 돈을 곶감 빼먹듯 하는 것이 안식이 아닙니다.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싶다면 먼저 돈으로부터 마음이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께로 집중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 안식과 금식의 본래 목적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활화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면 은행에 있는 돈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생각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삶은 언제나 지치고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에 얼마가 남았고 얼마를 더 쓸 수 있고 고민하는 계산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삶을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는 낡은 가죽 부대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삶을 고집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으려고 할 때에 찢어질 수밖에 없듯이 복음은 쏟아지고 말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뒤에 제대로 된 금식과 안식의 효과가 이루어지고 이때에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오늘도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안식과 금식의 본래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담이 첫째 날 하나님을 대면했듯이 또한 지금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대하고 계시듯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대면하게 하여 주셔서 눈앞에 나타나는 모든 세상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뜻을 받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